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찬양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주 은혜를 받으려(찬39/새39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마상오 집사 2부/박세환 장로 3부/박성남 집사 4부/이민수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선한능력(김재훈 편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 유아 세례식(2부) Infant Baptism ..... Isaac Lee 이원우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부/신(Deut.) 33:29 3부/벧전(1Pet.) 1:3-9..... Altogether 다같이  
4부/느(Neh.) 13:15-22
- 말씀 Message 1,2부..... 행복한 사람 ..... Rev. Hak Bong Jang 장학봉 목사  
3부..... 믿음의 결국 ..... Rev. Geun Su Ha 하근수 목사  
4부..... Do It Again(47): Entre chien et loup....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여전히 Jesus Alone
-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 치실과 회개

### Flossing and Repentance



배홍수 목사 / Rev. Daniel Bae

중학교 3학년 때쯤으로 기억합니다. 학교에서 한 학생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니엘, 너 입냄새 너무 심하다. 치실 안 하니?"라고 면박을 준 일을 계기로, 저와 치실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치실만큼 투자 대비 이득이 큰 일은 조깅을 빼고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처럼 이가 고르지 못한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치실의 세상에 한 번 입문하면 헤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것이 감사한 이유 중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치실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일 정도입니다.

치실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바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아프기만 합니다. 제대로 하면 잇몸에서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하다 보면 이내 입 안이 상쾌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치실을 제대로 하면 내치아 사이사이와 잇몸 안쪽에 상당히 많은 이물질이 끼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은(아마 고기를 먹고 난 후였던 것 같습니다) 치실을 하는데 너무 많은 찌꺼기가 나와서 "이 찌꺼기로 반찬 하나 만들 수 있겠다."라고 농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치실을 하면 치석이 거의 생기지 않고, 치아가 뿌리부터 튼튼하게 지켜지며, 충치가 생길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어금니가 뿌리부터 튼튼하게 유지되니 임플란트 등 비싸고 아픈 치료 과정을 최대한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하루 3~5분 투자해서 이 정도 이득을 보는데,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치실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치실을 할 때마다 '회개'에 대한 비유로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벧후 3:14)." 이 구절에서 '힘쓰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부지런히 노력하다', '서두르다', '열망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매일매일 기도과 말씀을 통해 회개하기를, 마치 매일 '치실' 하듯이 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에는 최악된 생각과 태도와 습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피 나고 아파도, 그것이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육 간의 치실을 부지런히 하여 영혼과 치아의 건강을 지키는 귀한 베델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I think it was around the third year of middle school. One day, at school, a classmate publicly said to me, "Daniel, your breath smells really bad. Don't you use dental floss?" That moment began my lifelong relationship with floss. In my opinion, aside from jogging, there are few things in life that offer such great returns for so little investment as flossing. Especially for someone like me, whose teeth are uneven, the benefits are enormous. Once you enter the world of dental floss, it's hard to get out. In fact, one of the reasons I'm thankful to be living in the U.S. is because it's the best place in the world to buy top-quality floss at a low price.

For beginners, the effects of flossing aren't immediate — it only hurts. If done properly, your gums may even bleed. But after a short while, you begin to feel your mouth becoming fresh and clean, and you can sense your dental health improving. When you floss properly, you'll discover that an astonishing amount of debris hides between your teeth and along your gums. Once, after eating meat, I found so much debris while flossing that I joked, "There's enough here to make a side dish!" If you floss regularly, you'll hardly develop any tartar, your teeth will stay strong from the roots up, and cavities will rarely occur. Especially your molars — they'll remain healthy and solid, allowing you to delay painful and expensive treatments like implants for many years. When you think about it, investing just three to five minutes a day for such a reward — it's surprising that more people don't do it.

Every time I floss, I can't help but think there's no better metaphor for repentance. 2 Peter 3:14 says, 'Therefore, beloved, since you are waiting for these, be diligent to be found by him without spot or blemish, and at peace.' The Greek verb translated as 'be diligent' carries the meaning of 'to make every effort', 'to be eager', 'to do one's best without delay.' In other words, through daily prayer and the Word, we are called to repent continuously — just as we are to floss daily. Why is that? Because deep inside the corners of our hearts — more than we realize — lie sinful thoughts, attitudes, and habits. And even when repentance feels painful, like bleeding gums, it remains the only path to true spiritual health. May all of us at Bethel Church be diligent in the 'flossing' of both body and soul — preserving the health of our spirits and our teeth alike.

주일 설교노트 / 나눔교재

- 1, 2부: **행복한 사람** (신 33:29) ..... 장학봉 목사
- 3부: **믿음의 결국** (벧전1:3-9) ..... 하근수 목사

적용하기



선교 후기  
온두라스

# 하나님이 채워주신 선교



이번 온두라스 시니어 단기선교는 정 목사님 인솔하에 메디컬팀으로 구성되어, 단기선교 경험이 풍부하신 70-80대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총 22명이 함께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원하셨던 의료선교팀을 갖추기에는 부족했고, 또 10월은 다들 바쁜 시기라 '과연 누가 함께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시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며 마음을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사람과 물질을 채워주셔서 풍성한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두 분의 의사와 함께한 메디컬팀, 한 의사팀, 안경팀, 미용팀, 사진팀, 복음팔찌팀으

로 구성되어 사역했습니다.

온두라스는 녹음이 우거지고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었으며, 우기였음에도 사역 기간 동안 비를 몇게 해주셔서 더욱 신선한 공기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순박하고 따뜻했으며,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치 옛날 농촌의 정겨운 풍경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옛날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도 이런 분위기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박 5일의 일정 중 긴 비행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사역은 단 3일이었습니다. 첫 이틀은 산골의 작은 보건소 옆 학교를 빌려 지역 주민들을 섬겼는데, 셋업과 예행연습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한 선교사님 학교의 학생들이 통역으로 큰 도움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 차분하고 은혜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교도소 사역에서는 예

상치 못한 1,000여 명의 인원이 몰려들어 선교 사님조차 놀라셨습니다. 날씨는 청명하고 하늘도 아름다웠으며, 운동장에는 수감자들과 방문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흥겨운 음악 소리와 활기찬 분위기가 마치 옛날 시골의 운동회나 장터를 연상케 했습니다.

6시간이 넘는 쉼 없는 사역이었지만, 모든 팀원이 '이것이 진짜 선교다'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모두가 '다시 가고 싶다' 말할 만큼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해 주신 분들, 그리고 기쁨으로 섬겨주신 팀원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선교의 기쁨과 은혜를 깊이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 집사

사역 간증  
식당

# 행복 바이러스가 퍼지는 곳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자보다도 즐겨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 기준에서도 억지나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은 자원하여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 베델교회에서 비록 몸은 고단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베델교회의 3D 사역 중 하나인 식당사역입니다.

식당사역팀은 김 장로 부부의 인도 아래, 사역권사 16명, 안수집사 2명, 자원봉사자 4명이 김밥, 무스비, 삼각김밥팀, 주일 식사팀, 설거지팀으로 나뉘어 사역합니다. 토요일 새벽 7시, 주일 새벽 5시부터 시작되어, 주일 오후 2시쯤에 마무리가 됩니다. 평일의 식재료 구입 시간을 빼고도 사역자 한 사람당 평균 한 주에 최소 6시간 이상의 적지 않은 시간의 헌신이 요구됩니다. 주말에 가족 행사를 희생해야 할 경우도 있지만, 마르다와 같은 불평의 얼굴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고단한 일을 기쁨으로 즐기는 모습들만이 보입니다. 힘든 일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만 골라 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 심리라면, 식당사역팀은 그 반대의 경우이지요. 힘든 일을 되레 먼저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굶은일을 뺏어오려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경우까지 훈훈한 광경이 매주일 목도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밝은 웃음을 보게 되는데, 웬지 행복 바이러스가 식당사역 공기로 전파되는지 사역자들의 기분이 자연스레 고양되고, 힘든 일이 솜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제가 본 아름다운 모습들 중에는 사역권사들의 남편들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자원하며 열심히 해서 부부가 서로를 응원해 주는 따뜻한 사랑 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볼 수 있어서 감동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성된 두 신임 안수집사가 정에 자녀 출산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충성하는 모습이 비단 식당사역팀만의 모습은 아닐 것이기에, 베델교회 각 지체, 모든 사역팀들이 기쁘게 충성하는 모습들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베델의 3D 사역에서 D를 'Dirty'가 아닌 'Dream'으로 읽혀야 할 것입니다. 베델교회에서 Co-ram Deo, Soli Deo gloria의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봉사하며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강정훈 집사



사역 후기

일어예배 브릿지 콘서트

# 15년의 찬양, 그 위로의 여정

지난주 토요일, 동일본 대지진 15주년을 기념하는 The Bridge Concert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해마다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을 찾아가 찬양으로 위로하고, 물심양면으로 섬겨온 선교사님과 동역자들을 보며 깊은 존경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풍성한 분들은 많이 보였지만, 말씀의 능력을 따라 실제로 순종하며 행하시는 분들은 참 드물었습니다. 그 순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 40:1) 이 말씀은 회복의 약속이자 미래의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며,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파괴된 그 현상이 떠오릅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과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전한 곳 - 그곳이 바로 동일본 대지진의 현장이었습니다.

Bridge Team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 찬양으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찬양은 환경보다 먼저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절망 대신 소망을, 눈물 대신 감사와 기쁨을 불러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찬양하며 서로 위로하고 화목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울며 조용히 위로하는 모습으로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콘서트 초반에 연주된 '물이 바다 덮음같이'는 마치 내가 하나님의 거대한 물결 위에 있는 듯한 벅찬 감동을 주었습니다. 일본인, 한국인, 미국인 세 자매가 함께 부른 찬양은 참으로 강력했고, '아 목동아'를 찬양으로 개사해 부른 무대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 중·고등학생들의 밝은 울동은 나도 함께 젊어진 듯한 기쁨

을 주었고, 세련된 지휘자의 인도 아래 남녀노소 모두가 열정적으로 참여한 무대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진행하신 공 선교사님과 그 일행, 일본어 예배팀, 목사님, 장로님,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은혜로운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김정태 장로



교회학교

아기학교

## 믿음의 울타리



아기학교는 최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여덟 분의 봉사자들 (여섯 분의 선생님, 그리고 점심과 간식을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권사님과 집사님) 이 함께 섬기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15개월부터 48개월까지의 아기들이 엄마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신앙과 인격의 기초를 세워가는 영·유아 신앙 놀이·교육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찬양과 말씀, 놀이와 예배가 어우러진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전도사님과 봉사자들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아갈 수 있도록 어떤 말씀

과 놀이로 수업을 진행할지 기도하며 정성껏 준비합니다. 또한 아기들이 영적으로 자랄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길 소망하며, 사랑으로 점심과 간식을 준비합니다. 아기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지를 매주 새롭게 경험합니다. 전도사님과 봉사자들은 아기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품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부모님과 손을 잡고 찬양과 울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마음 깊이 느낍니다.

또한 아기학교를 통해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인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예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로운 변화를 보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

고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기꺼이 내려놓고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사역을 통해 부모와 저희 봉사자들, 그리고 아이 모두가 함께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찬양하고, 선생님들이 그 곁에서 기도할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열리고, 저희들의 믿음도 더욱 단단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기학교를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세대와 세대를 잇는 믿음의 울타리로 사용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해 더 많은 가정 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기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심겨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복된 사역에 함께 할 새로운 선생님들과 봉사자들이 채워지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현승원 집사

교회학교  
소망부

#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3년 전 베델에 처음 왔을 때,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와 개인 신앙생활이 최우선이고 교회 '사역'은 부가적인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예살 친구가 소망부 VBS 준비를 석 달째 기도 제목으로 내는 것을 보고 의심이 섞인 궁금함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VBS가 제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이전에 보지 못했던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비교적 주목받기 어려운 소망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십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

이는 모습을 보며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음을 처음 생각했고, 소망부 교사로 등록했습니다.

소망부 생활이 항상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양한 행동 특성을 가진 학생들과 예배드리다 힘들어 예배당 뒤에서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싶다'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지금은 소통이 서투르도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서는 서로 소통하며 예배드릴 것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학부모님·전도사님·선생님들의 수고를 아시고 위로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점을 떠올렸습니다.

주일 아침 집을 나서며, 성경이 말하는 '그날'이 오면 소망부 학생들이 장애 없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내가 '오늘' 믿는지 점검합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는 곧 만날 학생들을 생각하며,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하실 일과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올 한 해 직장에서 레이오프, 영주권 스폰 중단, 체류 신분 위기를 겪으며 심난한 상황이었지만, 소망부 예배를 통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곳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소망부는 제게 봉사자 아니라 신앙고백이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통로였습니다.

더불어 올해 김 전도사님이 부임하여 Christ Connection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발견해 나가고, 나 집사님의 찬양 연습, 선생님들의 재능 기부로 운영되는 토요학교 등 학생들과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며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소망부를 위한 교회와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기도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나라를 소망하시는 성도님들은 주일 2·3부 조이채플로 오셔서 그분의 하실 일을 함께 체험하는 기회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권주현 집사

부설 사역  
BCA

## 은혜의 레시피

지난 두 주간 BCA에서는 큰 행사가 두 개나 있었습니다. Family Fall Fest에서 BCA Lemonade Stand를 열었고, 또 매년 진행되는 Donor Banquet이 있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분주하고 활기찬 시간이었습니다.

Lemonade Stand는 우리 아이들이 fund-raising에 직접 참여하고, 부모와 아이 세대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작은 거저씨 같은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험한 세상 속에서 밖에서는 하기 힘든 소중한 경험을, 우리 학교와 교회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고 싶은 엄마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막상 준비를 시작하니 모두 처음 해보는 일이라 허점투성이였습니다. 레모네이드를 대량으로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 와중에 함께 팔기로 했던 솜사탕 기계도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다시 기

도로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다음 날 다 같이 모여 하나하나 다시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하다 보니 모든 레시피가 놀라울 정도로 딱 맞아떨어졌고, 시음을 부탁드리면 다들 맛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새로 도착한 솜사탕 기계도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연습하시며 능숙하고 예쁜 솜사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비껴쳐 속에 담긴 '은혜의 레시피'였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솜사탕과 레모네이드를 팔 준비를 할 때, 아이들에게 홍보만 맡기려 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르게 일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주문을 받고 계산도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솜사탕과 레모네이드 사세요!'를 외치고 정성껏 주문을 처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의 능력을 너무 작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힘들었을 텐데도 누구보다 기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표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1,004로 집계되며, '천사! We are blessed!'라고 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레시피는 계속됩니다. 정성 가득히 준비한 Donor Banquet을 비롯해 앞으로 연말까지 여러 행사가 이어지지만, 그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정로즈마리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총성/훈련/BCA: 정승락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Joy/화평/섬김: 박성권 목사
- 사랑/QT: 조태현 목사
- 은혜/예배: 서동민 목사
- 믿음/공동체: 조동현 목사
- 운유/말씀/QTin: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일본어/수요예배/기도: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이형석 목사
- 예삼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성우 목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 정티나 목사
- 영아부/아기학교: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삼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운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종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인: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지역광고

# BYM, CIM 겨울 수련회

올 겨울, BYM QARA(영어 중등부), BYM HOLOS(영어 고등부), 그리고 CIM(한어 중고등부)가 각각 겨울 수련회를 떠납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의 각 부서의 주제는 QARA는 'Kainos'(새롭다), HOLOS는 'Re:Store', CIM은 'Like Jesus'입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 두 번의 수련회를 통해 뜨거운 기도와 간절한 예배, 말씀의 능력을 통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세우고, 많은 학생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는 영적 전환점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목회자나 선교사의 길을 결단하기도 했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수련회 속에서 베델 자녀들을 위해 일하시며,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가 모든 학생에게 충만히 임하고 계십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며, 죄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가 Bethel Church Youth를 든든히 세워가는 힘이 됩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 기도로 동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련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등록은 QR 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영어 중등부(BYM QARA)

기간: 12월 21일(주일)-23일(화)  
 장소: Pali Retreat  
 대상: 6-8학년  
 회비: \$225  
 문의: Cindy Lee 전도사  
 (213)335-9049



<영어 중등부>

▶ 영어 고등부(BYM HOLOS)

기간: 12월 21일(주일)-23일(화)  
 장소: Pine Summit  
 대상: 9-12학년  
 회비: \$225  
 문의: Hanna Kim 전도사  
 (909)837-7747



<영어 고등부>

▶ 한어 중고등부(CIM)

기간: 12월 21일(주일)-24일(수)  
 장소: Thousand Pines Christian Camp  
 회비: \$200 (다자녀 회비: 첫째-\$200, 둘째-\$175, 셋째-\$150)  
 베델 교인이 아닌 친구 회비: 친구와 초청한 CIM 학생 모두 \$150  
 문의: 이성우 목사 (818)294-8535



<한어 중고등부>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1월)	11/16:	①부-김주홍	②부-김학남	③부-박재문	④부-주연
	11/23:	①부-박종민	②부-방모세	③부-박호성	④부-도함준
	11/30:	①부-김태현	②부-박원규	③부-박영선	④부-김규래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11,12월) | 11/15: 김효선 11/22: 나성욱 11/29: 박관규 12/6: 김흥순

강단꽃(11월) | 11/9: 김호경, 이선옥, 이성애 11/16: 김인흠, 정병화 11/23: 강정선, 서은숙, 윤주원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김규연(소아과), 간호사-박수잔      다음주 | 의사-김혜수(가정의학과), 간호사-주경아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더)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김예평(김진명),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창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 베델 알림판

### Bethel Announcements

◆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예배는 '한미포럼: 가을에 끝에서 찾은 행복' 특별집회로 1-2부는 장학봉 목사님(성안교회), 3부는 하근수 목사님(동탄시온교회)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 **수요저녁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한주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11월 12일(수), 저녁 7시 30분  
 문의: 김중학 집사 (949)285-9408  
 \*QR코드를 스캔하셔서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만나세요!



◆ **목장별 추수감사축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추수감사축제 'The Story of Bethel'로 모든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목장별로 온 세대가 함께 준비하는 장기자랑과, 전교인 만찬 저녁 식사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축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코트야드 추수감사축제 준비 부스를 통해 봉사와 도네이션에도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문의: 11월 23일(주일) 오후 4시, 본당, 조광종 집사 (949)706-4168

◆ **Samaritan's Purse Shoe Box 나누기 캠페인** 사마리안 퍼스 박스는 전 세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담은 선물 상자를 보내는 사역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셔서, 각 가정이나 나눔의 소중함과 기쁨을 함께 체험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10월 26일(주일)-11월 16(주일), 코트야드에서 박스 픽업 후 제출  
 문의: 김정범 집사 (714)623-0919

◆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영어 중/고등부(BYM), 한어 중고등부(CIM)가 각각 12월 21일(주일)부터 겨울 수련회를 갖습니다. 등록은 큐알코드로 해 주시면 됩니다. (7면 참고)  
 영어 중등부 장소/문의: Pali Retreat, Cindy Lee 전도사 (213)335-9049  
 영어 고등부 장소/문의: Pine Summit, Hanna Kim 전도사 (909)837-7747  
 한어 중고등부 장소/문의: Thousand Pines Christian Camp, 이성우 목사 (818)294-8535

◆ **교회 청결 캠페인(No Food)** 깨끗한 환경 속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본당 건물 및 비전센터 안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말씀을 배우고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각 교실과 채플에서는 음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코트야드에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한요 목사 주일설교 USB 판매** 은혜 가운데 마친 주일설교 '골로새서 강해의 전환을 담은 USB를 코트야드 부스에서 오늘부터 판매(\$10)합니다. 아울러 요한계시록 강해와 히브리서 강해도 다음 주부터 판매할 예정입니다. 전도에 널리 활용하실 수 있으며, 판매금액은 전액 다음 세대를 위해 쓰입니다.

◆ **주소 변경 업데이트** 이사하시거나 거처를 옮기신 이후에 미처 주소 변경 사항을 교회에 알리지 못하신 경우에 변경된 주소를 현금봉투에 기입해 주시거나 행정사무실에 오셔서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얼바인 카이로스 훈련**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배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카이로스 훈련에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11월 15일(토)-22일(토), 디사이플 교회(고현중 담임목사)  
 시간: 토: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주일: 오후 2시-6시, 월-금: 오후 7시-9시 30분  
 참가비: \$125(교재/간식/식사포함-2번)  
 문의: 장규석 선교사(GPUSA), jang@godispd.com, www.simplymobilizing.us/korean

◆ **상담해 드립니다** 개인 생활과 가정, 자녀 문제 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매주 금요일 상담 협동 목사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행정사무실이나 홈페이지, 큐알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박성권 목사 (718)490-9931



◆ **기도해 주세요**  
 - 탈북 여성을 위한 힐링캠프가 11월 11일(화)-13일(목)에 있습니다.  
 - 제101차 베델동산이 11월 14일(금)-16일(주일)에 있습니다.  
 - 일일 멕시코 선교가 11월 15일(토)에 있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오늘 2부 예배에 이근제/이제영 집사의 아들 이원우(Isaac)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김영애 집사님(김소리 집사의 모친)께서 10월 28일(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이종순 성도님(황미례 집사의 모친, 이근형 성도의 장모)께서 11월 6일(목)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 <b>AWANA(어와나):</b>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b>중,고등부:</b>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b>한국학교:</b>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b>아기학교:</b>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 <b>주중 새벽기도회(화-금):</b> 오전 5시 30분, 본당 ■ <b>헵시바 새벽기도회(토):</b>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b>베델 수요저녁예배:</b> 오후 7시 30분, 본당 ■ <b>예살금요일예배(청년):</b>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b>주일 레위기기도 모임:</b>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 <b>발행인:</b> 김한요 담임목사 ■ <b>편집장:</b> 김경자 권사 ■ <b>기자:</b>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인경,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정원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b>사진 기자:</b> 박상근 장로, 최호경 집사, 차규양 장로 ■ <b>번역:</b>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mailto: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mailto:bgrcenter@hotmail.com)

Sunday Worship Sermon Note

---

- 1<sup>st</sup> & 2<sup>nd</sup>: **The Blessed One** (Deuteronomy 33:29)..... Rev. Hak Bong Jang
- 3<sup>rd</sup>: **The Outcome of Faith** (1 Peter 1:3-9).....Rev. Geun Su Ha

Apply to Life



English translations for  
worship services via  
Discord